

FTA 이슈 리포트

제17호_2020. 3. 15

한·미 FTA 발효 8년, 농식품 교역 변화

김경필·석준호·염정완·김지연·명수환

요약

미국산 수입액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2007~2012년 평균, 이후 동일) 59.4억 달러에서 한·미 FTA 발효 후 평균(2012~2019년 평균, 이후 동일) 75.6억 달러로 27.3% 증가한 반면, 미국산 수입액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 증가폭이 미국산 수입액 증가폭을 상회함에 따라 소폭 감소

-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축산물 평균 수입액은 20.3억 달러로 발효 전 평균보다 112.0% 증가하였고, 이는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입 증가에 따른 영향
-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과일·채소 수입액은 6.4천만 달러로 한·미 FTA 발효 전 평균보다 92.3% 증가

한·미 FTA 발효 이후 평균 대비 농식품 수출액은 6.7억 달러로,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4억 달러에서 67.2% 증가

-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비 곡물(22.7%), 과일·채소(45.0%), 가공식품(65.4%), 축산물(75.3%) 평균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과 비교하여 모두 증가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축산물의 평균 수입량은 발효 전 평균 대비 34.7% 증가했으며, 이행 8년차 수입량 또한 발효 후 평균과 전년 대비 각각 27.7%, 2.2% 증가

- 전체 축산물 수입량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효 전 평균 31.1%에서 발효 후 평균 31.5%로 소폭(0.4%p) 증가한 반면, 미국산 닭고기 수입량 비중은 발효 전 평균 대비 32.8%p 감소한 18.6%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과일 평균 수입량은 발효 전 평균 대비 53.0% 증가했으나, 이행 8년차 수입량은 발효 후 평균과 전년 대비 각각 6.0%, 10.5% 감소

- 관세 인하 효과 등으로 인해 2019년 미국산 주요 신선과일의 수입액과 수입량 모두 한·미 FTA 발효 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발효 후와 비교했을 때에도 오렌지, 체리를 제외한 미국산 주요 신선과일의 수입은 증가

01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2019년 소비변동 요인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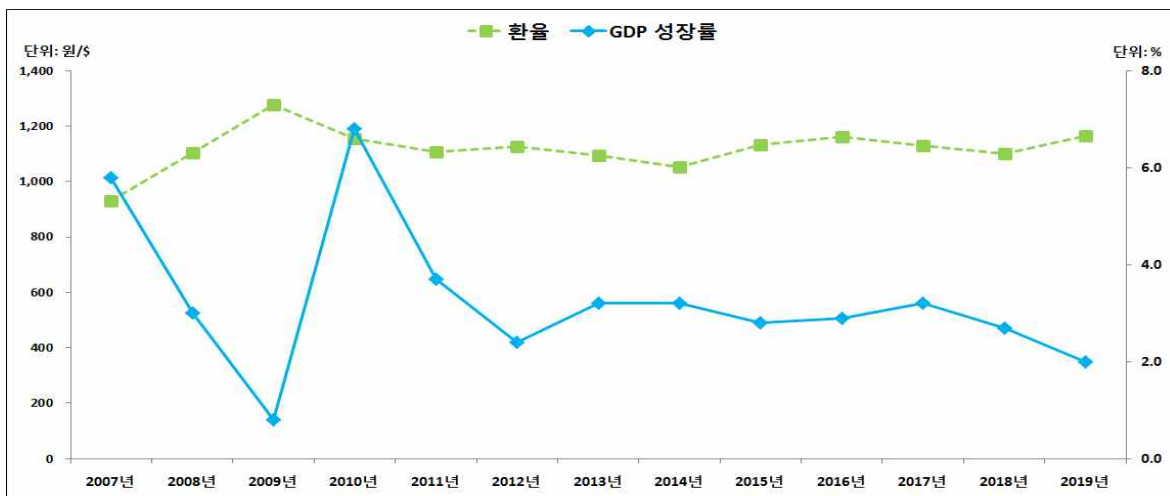
1.1. 국내 소비변동 요인

일본의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등의 글로벌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여건이 악화되면서 2019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전년 대비 5.9% 상승

원/달러 환율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모두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전후를 제외하고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미 FTA 발효 시점인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0.5% 상승,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6% 감소
- 2019년 원화가치는 전년 대비 평가절하되고, GDP 성장률이 하락하였지만 변화율은 크지 않아 국내 소비자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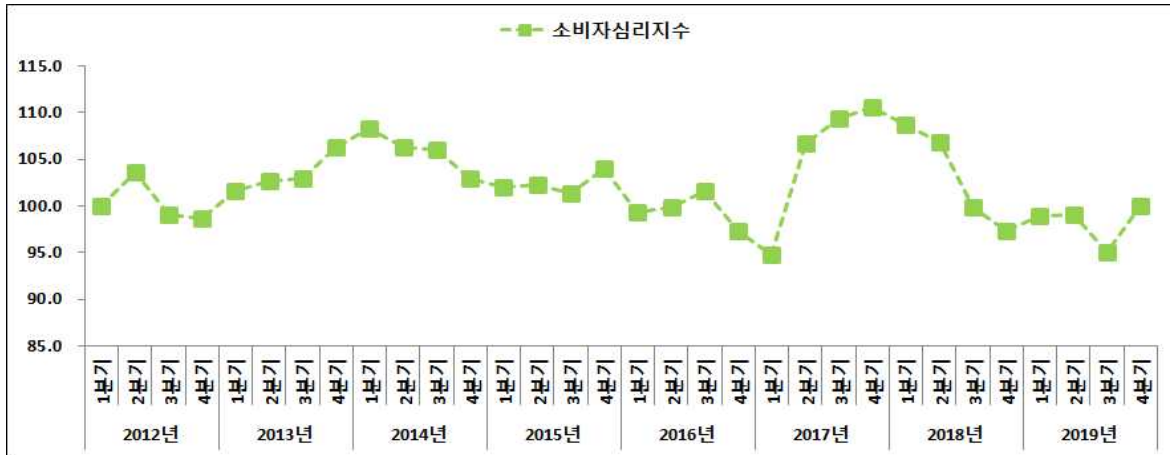
〈그림 1〉 환율 및 경제성장률 변동추이



자료: 한국은행(연평균 환율 및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1) '한·미 FTA 발효 8년, 농식품 교역 변화' 이슈리포트는 주로 한·미 FTA 발효 전과 발효 후를 비교하여 서술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5개년 단순 평균, 발효 후 평균은 2012~2019년 8개년의 단순 평균값을 의미

〈그림 2〉 국내 소비자심리지수 변동추이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²⁾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100이하의 지수를 보임.

2019년 3분기에 크게 하락한 소비자심리지수가 4분기에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9년 11월과 12월에는 100 이상의 지수를 보임.

- 2020년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4.2로 전월(2019년 12월) 대비 3.7p 상승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2월에는 96.9로 전월 대비 7.3p 하락

1.2. 농축산물 안전성

(아프리카돼지열병) 전 세계적으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들의 돼지 수급 및 수출입에 영향을 유발

2018년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영향으로 중국의 對세계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 수요를 견인하여, 돼지고기의 국제가격 상승³⁾

- 2019년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14% 감소한 4,650만 톤, 수입량은 전년 대비 66.6% 증가한 260만 톤⁴⁾⁵⁾

2)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구성 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2003~2019년 중 장기평균치를 기준값(100)으로 하고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3) 이형우 외(2019),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 『농정포커스』 제180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참조

4) USDA(2020.01),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보고서를 참고

5) 미국 농무부에서 2020년 1월에 추정된 수치

-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이 미국산 돼지고기에 부과한 보복관세에도 불구하고 ASF의 영향으로 중국내 돼지고기 생산이 감소하고 해외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중국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은 증가⁶⁾
- 2019년 미국의 對중국 돼지고기 수출량⁷⁾은 전년(185.7천 톤) 대비 97.5% 증가한 366.8천 톤

중국이 대규모로 돼지고기를 수입하면서 미국의 돼지고기 선물가격 및 EU의 돼지 지육가격 등의 국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

- 시카고 선물거래소 거래 자료(2019년 4월 4일 기준)에 따르면, 2019년 평균 돼지고기 선물 가격은 전년(1.42달러/kg)보다 30.2% 상승한 1.85달러/kg

2019년 9월 국내에서 발생한 ASF의 영향으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2019년 전반적인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보다 하락⁸⁾

- 2019년 9월 국내에서 발생한 ASF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19년 돼지 사육마릿수 증가로 인해 돼지고기 생산량은 증가
- 이에 따라 2019년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4,296원/kg; 탕박, 제주도 제외) 대비 12% 하락한 3,779원/kg

(유해물질 검출) 미국산 농축산물(닭고기, 아보카도)에서 유해물질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면서 해당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 수입량 감소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인 SEM(기준: 불검출)이 검출(0.0006~0.0033mg/kg)되면서 2018년 4월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미국산 아보카도에서 카드뮴이 기준(0.05 mg/kg 이하)보다 초과검출(0.12 mg/kg)되면서 2019년 8월 해당 제품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6) 문한필 외(2019), "미·중 무역전쟁 현황과 농식품 분야 파급 영향," 『현안분석』 제6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참고

7) Global Trade Atlas(<https://connect.ihs.com/>; 2020.03.11.), 미국의 대중국 돼지고기 수출량은 HS코드 020329, 020322, 020649에 대한 수출실적을 합산하여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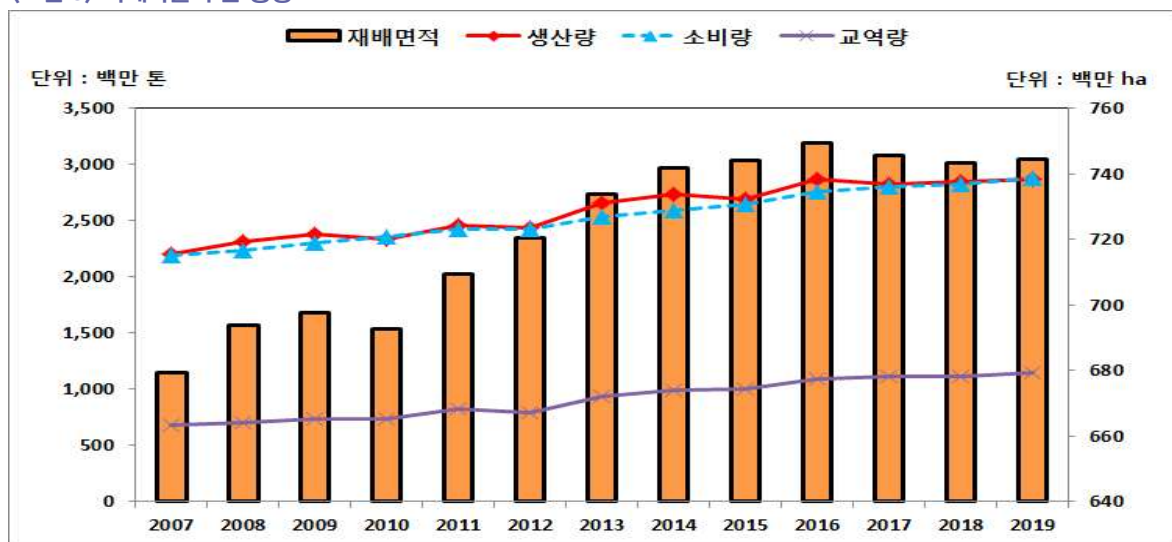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전망 2020 (2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참고

1.3. 국제곡물 수급 동향⁹⁾

세계육류 소비증가에서 파생된 사료소비와 세계 여러 국가들(예: 미국, 브라질, 유럽 등)의 바이오에너지¹⁰⁾(예: 옥수수를 활용하여 바이오연료 추출) 생산증가로 국제곡물 재배면적, 생산량,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

국제곡물의 소비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상회하면서 2019년 전 세계 소비량이 생산량을 상회

〈그림 3〉 국제곡물 수급 동향



주: 국제곡물의 재배면적, 생산량, 이월재고량, 기말재고량, 수출량, 수입량, 소비량은 쌀, 보리, 밀, 옥수수, 콩의 합계임.

주: 교역량은 수출량과 수입량의 합임.

자료: PSD Online.

9) 2019년 자료는 USDA 전망자료를 활용

10) 2018년 3월에 발표된 USDA의 보고서 “Indicators of the U.S. Biobased Economy”를 참고

1.4. 세계 과일 수급 동향¹¹⁾

전 세계 체리, 포도의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은 한·미 FTA 발효 전과 비교하여 발효 후 모두 증가한 반면, 오렌지는 주요 생산국인 미국과 브라질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전 세계 오렌지 생산량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보다 한·미 FTA 발효 후(평균) 3.9% 감소

체리, 포도의 전 세계 소비량이 증가가 해당 품목의 세계 생산량 증가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교역량도 한·미 FTA 발효 전 평균과 비교하여 발효 후(평균)에 크게 증가

오렌지 전 세계 소비량과 생산량은 한·미 FTA 발효 전후로 소폭 감소

- 오렌지 주요 생산국은 브라질, 미국, 중국, EU 등임. 미국의 오렌지 생산량은 1997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렌지 생산 1위 국가인 브라질의 오렌지 생산량은 매년 크게 변동
- 한·미 FTA 발효 전후로 중국의 오렌지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고, EU의 오렌지 생산량은 한·미 FTA 발효 전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對미 주요 수입과일인 체리, 포도, 오렌지 중 체리, 포도의 생산량·소비량은 모두 한·미 FTA 체결 이후 증가한 반면, 오렌지 생산량·소비량은 감소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기준으로 미국의 체리 및 포도의 생산량은 각각 393천 톤, 846천 톤 수준이었으나, 미국 및 전 세계 수요 확대로 미국의 체리와 포도 생산량은 한·미 FTA 발효 전과 비교하여 발효 후 각각 12.9%, 13.2% 증가

오렌지의 미국 내 소비 감소로 인하여, 한·미 FTA 발효를 전후로 미국의 오렌지 생산량은 크게 감소

- 오렌지주스에 대한 미국 내 선호 하락 및 가격 경쟁력이 있는 칠레, 멕시코, 남아공산 오렌지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미국의 오렌지 생산량은 크게 감소
- 이에 따라 미국의 오렌지 생산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8,229천 톤에서 한·미 FTA 발효 후 평균 5,354천 톤으로 34.9% 감소

11) 과일 세계 수급 동향은 對미 과일 교역 가운데 주요 품목인 체리, 포도, 레몬, 오렌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2019년 자료는 USDA의 전망자료를 활용

〈표 2〉 세계 과일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

구 분			발효 전 평균 (‘07-‘11) (A)	발효 후 평균 (‘12-‘19) (B)	’18년 (C)	’19년 (D)	증감률		
							B/A	D/B	D/C
세계	체리	생산량	2,790	3,318	3,646	3,619	18.9	29.7	-0.8
		소비량	2,193	2,619	2,885	2,915	19.5	33.0	1.0
		수출량	222	380	460	454	71.3	104.5	-1.3
		수입량	206	350	437	432	69.4	109.2	-1.3
	포도	생산량	17,200	22,306	22,462	23,430	29.7	36.2	4.3
		소비량	17,135	22,067	22,150	23,026	28.8	34.4	4.0
		수출량	2,465	2,952	3,165	3,221	19.8	30.7	1.8
		수입량	2,402	2,871	3,084	3,129	19.5	30.3	1.5
	오렌지	생산량	52,121	50,103	53,296	47,469	-3.9	-8.9	-10.9
		소비량	29,023	29,386	30,160	28,657	1.3	-1.3	-5.0
		수출량	3,774	4,405	4,684	4,489	16.7	19.0	-4.2
		수입량	3,470	4,101	4,438	4,481	18.2	29.1	1.0
미국	체리	생산량	393	444	441	450	12.9	14.4	2.0
		소비량	179	184	189	208	3.2	16.4	9.9
		수출량	58	86	87	80	46.7	37.1	-7.8
		수입량	19	13	12	18	-33.0	-6.2	54.0
	포도	생산량	846	958	997	998	13.2	18.0	0.1
		소비량	1,097	1,171	1,199	1,298	6.7	18.3	8.3
		수출량	322	361	368	345	12.1	7.2	-6.4
		수입량	573	574	570	645	0.1	12.5	13.1
	오렌지	생산량	8,229	5,354	4,833	4,898	-34.9	-40.5	1.3
		소비량	1,393	1,296	1,215	1,251	-7.0	-10.2	3.0
		수출량	644	556	479	485	-13.6	-24.7	1.3
		수입량	99	174	193	195	76.2	97.4	1.0

자료: PSD Online.

1.5. 세계 축산물 수급 동향¹²⁾

한·미 FTA 발효 후 전 세계 축산물 생산과 소비, 교역 모두 발효 전보다 증가

전 세계 쇠고기의 평균 생산량과 소비량은 한·미 FTA 발효 후에 발효 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수출·수입량은 한·미 FTA 발효 후 각각 26.9%, 16.6% 증가

전 세계 돼지고기, 닭고기 생산, 소비, 교역 모두 한·미 FTA 발효 전후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교역 부문이 크게 증가

- 전 세계 닭고기 생산량과 소비량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과 비교하여 한·미 FTA 발효 후(평균) 각각 20.9%, 20.5% 증가
-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과 소비량은 한·미 FTA 발효 전후(평균)로 각각 10.2%,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과 수입도 한·미 FTA 발효 후 평균 31.5%, 27.0% 증가

12) 세계 축산물 수급 동향은 축산물 가운데 주요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시장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2019년 자료는 USDA의 전망 자료를 활용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의 쇠고기 생산·소비량은 감소한 반면, 닭고기와 돼지고기 생산·소비량은 증가함.

미국의 쇠고기 평균 생산·소비량은 한·미 FTA 발효 후에 발효 전과 비교하여 각각 2.8%, 3.7% 감소하였으나 2016년 이후 모두 증가 추세를 유지하면서, 2019년 미국 쇠고기 생산량과 소비량은 한·미 FTA 발효 전 수준을 회복

-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쇠고기 생산량과 소비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발효 후 평균 수출량과 수입량은 한·미 FTA 발효 전과 비교하여 28.5%, 13.6% 증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내 돼지고기와 닭고기 생산·소비·수출·수입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 미국의 닭고기 생산·소비는 2007년 이후 연평균 1.6% 증가하고 있으며,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의 닭고기 평균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수입량은 각각 발효 전(평균)과 비교하여 10.1%, 11.3%, 4.3%, 25.5% 증가
- 2007년 이후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과 소비는 연평균 각각 1.9%, 1.0% 증가하고 있으며,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의 돼지고기 평균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수입량은 각각 발효 전(평균)과 비교하여 9.2%, 5.5%, 27.6%, 16.7% 증가

〈표 3〉 세계 축산물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

			발효 전 평균 (‘07-‘11) (A)	발효 후 평균 (‘12-‘19) (B)	’18년 (C)	’19년 (D)	증감률		
							B/A	D/B	D/C
세계	쇠고기	생산량	58,774	60,500	62,477	61,604	2.9	4.8	-1.4
		소비량	57,866	58,698	60,639	59,484	1.4	2.8	-1.9
		수출량	7,707	9,782	10,567	11,314	26.9	46.8	7.1
		수입량	6,828	7,962	8,720	9,176	16.6	34.4	5.2
	닭고기	생산량	75,364	91,134	95,584	99,006	20.9	31.4	3.6
		소비량	74,097	89,302	93,631	97,005	20.5	30.9	3.6
		수출량	8,560	10,752	11,289	11,701	25.6	36.7	3.6
		수입량	7,287	8,943	9,316	9,716	22.7	33.3	4.3
	돼지고기	생산량	100,235	110,499	112,938	106,001	10.2	5.8	-6.1
		소비량	100,095	109,986	112,342	105,351	9.9	5.3	-6.2
		수출량	5,998	7,887	8,445	9,476	31.5	58.0	12.2
		수입량	5,828	7,399	7,911	8,894	27.0	52.6	12.4
미국	쇠고기	생산량	12,031	11,697	12,256	12,381	-2.8	2.9	1.0
		소비량	12,226	11,772	12,180	12,408	-3.7	1.5	1.9
		수출량	948	1,218	1,434	1,372	28.5	44.8	-4.3
		수입량	1,140	1,296	1,360	1,388	13.6	21.7	2.1
	닭고기	생산량	16,630	18,317	19,361	19,906	10.1	19.7	2.8
		소비량	13,605	15,138	16,184	16,664	11.3	22.5	3.0
		수출량	3,085	3,217	3,245	3,259	4.3	5.6	0.4
		수입량	46	58	64	60	25.5	29.3	-6.3
	돼지고기	생산량	10,304	11,248	11,943	12,543	9.2	21.7	5.0
		소비량	8,756	9,235	9,748	10,126	5.5	15.6	3.9
		수출량	1,933	2,467	2,665	2,856	27.6	47.8	7.2
		수입량	390	455	473	434	16.7	11.4	-8.2

자료: PSD Online.

한·미 FTA 이행과 농식품 교역 동향¹³⁾

2.1. 미국산 농식품 수입 동향

미국산 수입액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59.4억 달러에서 한·미 FTA 발효 후 평균 75.6억 달러로 27.3% 증가하였지만, 미국산 수입액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 증가폭이 미국산 수입액 증가폭을 상회함에 따라 소폭 감소

〈표 4〉 우리나라 농식품 수입액 및 미국산 수입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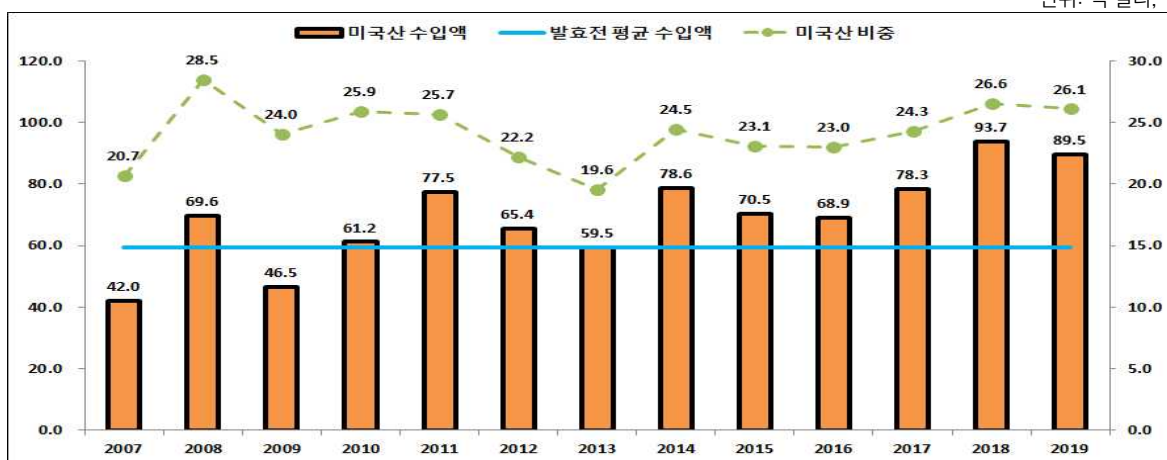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 %p

구 분	발효 전 평균 (‘07-‘11) (A)	발효 후 평균 (‘12-‘19) (B)	’18년 (C)	’19년 (D)	증감률		
					B/A	D/B	D/C
전체 수입액(E)	235.8	317.9	353.0	343.0	34.8	7.9	-2.8
미국산 수입액(F)	59.4	75.6	93.7	89.5	27.3	18.5	-4.5
미국산 수입액 비중(F/E)	25.2	23.8	26.6	26.1	-1.4	2.3	-0.5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그림 4〉 미국산 농식품 수입액 동향

단위: 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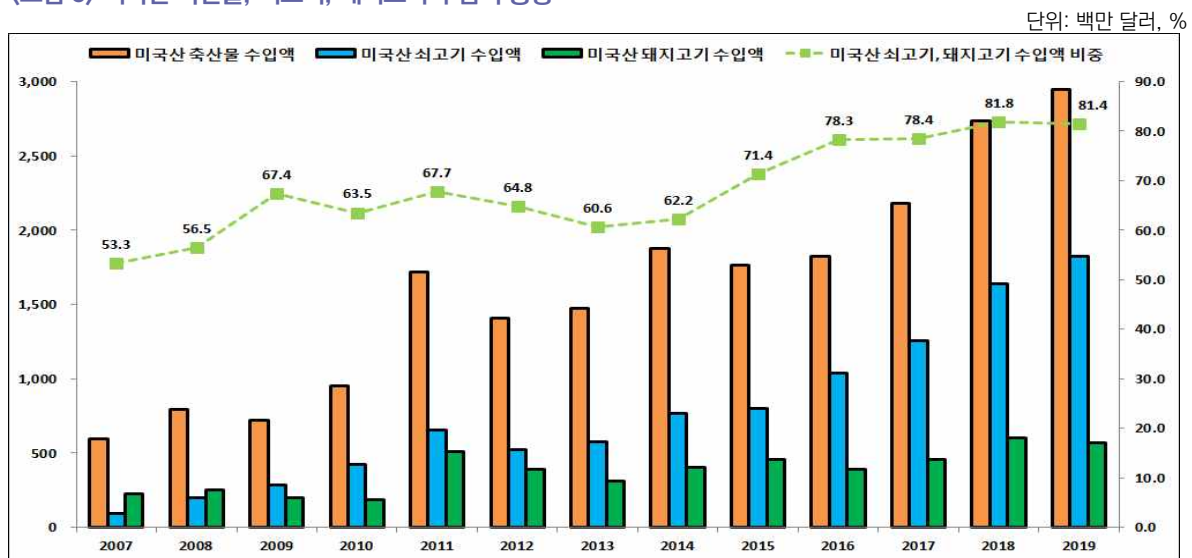
13) 한·미 FTA 교역동향의 분석을 위해 회계연도(1~12월) 기준으로 농축산물 2,924개 HSK 코드별 교역 자료를 집계했으며, 발효 전 평균은 2007년~2011년 5개년 단순 평균, 발효 후 평균은 2012년~2019년 8개년의 단순 평균값을 의미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축산물(112.0%), 과일·채소(92.3%), 가공식품(86.0%) 평균 수입액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수입액보다 증가한 반면, 미국산 곡물(Δ 24.1%)의 평균 수입액은 한·미 FTA 발효 전(평균)보다 감소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축산물 평균 수입액은 20.3억 달러로 발효 전 평균보다 112.0% 증가하였고, 이는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입 증가에 따른 영향

-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액은 한·미 FTA 발효 전 미국산 수입 축산물의 61.7%를 점유하였고, 한·미 FTA 발효 이후 72.4%를 차지
-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액은 2007년 이후 각각 연평균 28.0%, 8.0% 증가하였으며,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007년 9.4억 달러에서 2019년 18.3억 달러로 크게 증가

〈그림 5〉 미국산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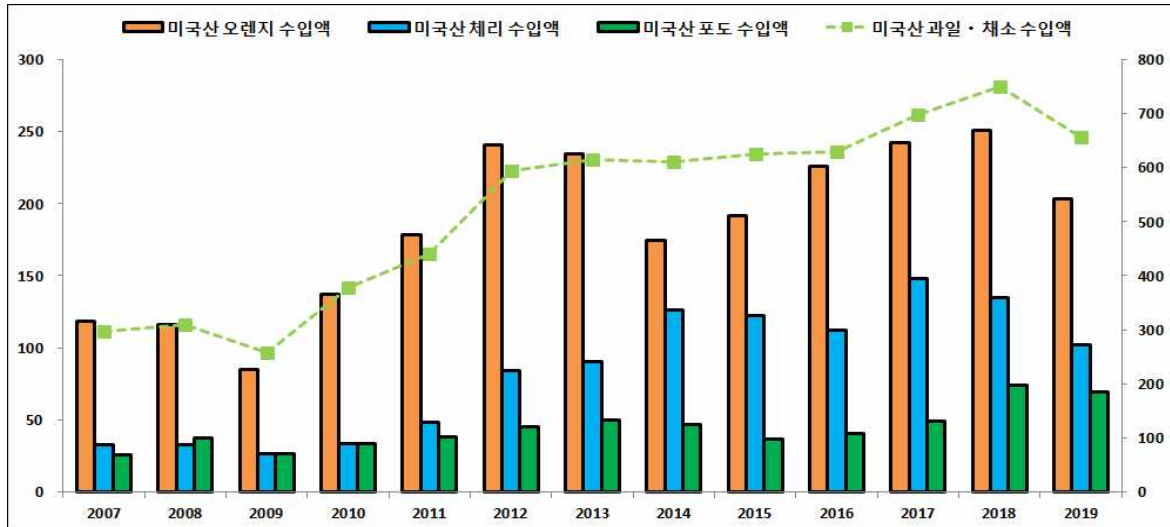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과일·채소의 평균 수입액은 6.4천만 달러로 한·미 FTA 발효 전 평균보다 92.3% 증가

- 미국산 과일 수입 품목 중 주요 품목인 오렌지, 체리, 포도 등의 수입액은 한·미 FTA 발효 전(평균)과 비교해서 한·미 FTA 발효 이후(평균) 각각 73.7%, 230.5%, 59.4% 증가

〈그림 6〉 미국산 과일 및 주요 과일 품목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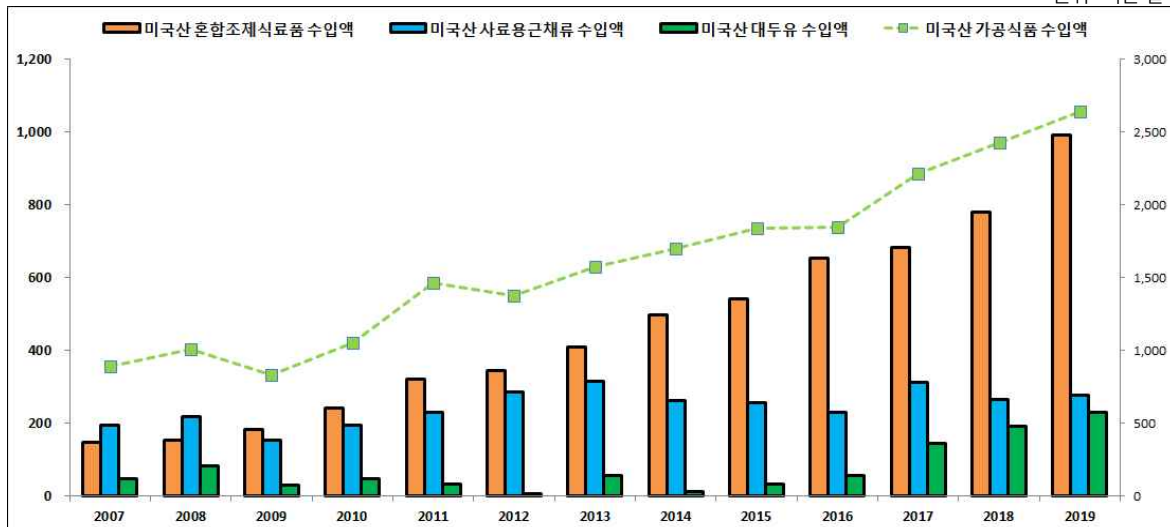
주: 왼쪽 축은 미국산 오렌지, 체리, 포도, 레몬 수입액 단위이고, 오른쪽 축은 미국산 과일 수입액 단위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미국산 가공식품 수입액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10.5억 달러에서 한·미 FTA 발효 후 평균 19.5억 원으로 86.0% 증가

- 미국산 가공식품 수입¹⁴⁾ 품목 중 주요 품목인 혼합조제식료품(192.3%), 사료용근채류(38.6%), 대두유(92.8%) 등의 수입액이 크게 증가

〈그림 7〉 미국산 가공식품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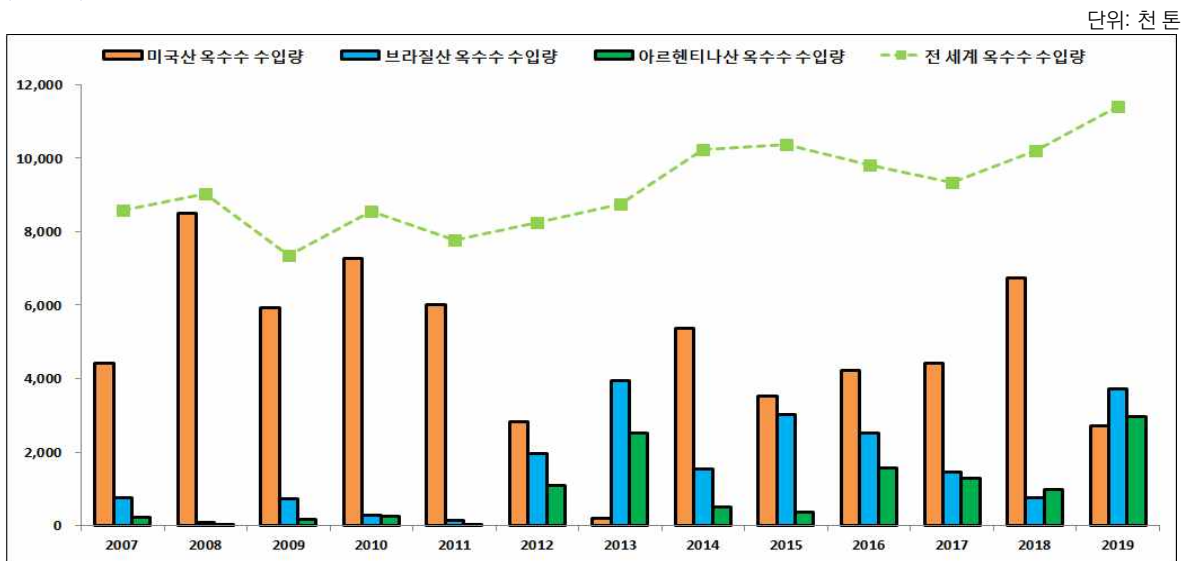
주: 왼쪽 축은 미국산 혼합조제식료품, 사료용근채류, 대두유 수입액 단위이고, 오른쪽 축은 미국산 가공식품 수입액 단위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4) 미국산 가공식품 수입 품목 중 상위 5개 품목(혼합조제식료품, 사료용근채류, 대두유, 면, 에틸알코올)이 2019년 미국산 가공식품 수입액의 67.9%를 차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전체 수입액은 증가하였으나, 미국산 곡물 수입액은 한·미 FTA 발효 전보다 감소

- 한·미 FTA 발효 전 미국산 옥수수 평균 수입액은 17.2억 달러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평균 8.6억 달러로 50.2% 감소
- 한·미 FTA 발효 전 우리나라 전체 옥수수 수입량¹⁵⁾의 77.7%를 차지하던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수입선이 전환됨에 따라 38.0%로 39.7%p 감소

〈그림 8〉 우리나라 옥수수 수입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표 5〉 미국산 농식품 부류별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발효 전 평균 (‘07-’11) (A)	발효 후 평균 (‘12-’19) (B)	’18년 (C)	’19년 (D)	증감률		
					B/A	D/B	D/C
전체 합계	5,936	7,556	9,373	8,953	27.3	18.5	-4.5
농산물	4,196	4,730	5,849	5,312	12.7	12.3	-9.2
- 곡물	2,812	2,133	2,672	2,018	-24.1	-5.4	-24.5
- 과일·채소	336	647	751	656	92.3	1.4	-12.6
- 가공식품	1,048	1,950	2,426	2,639	86.0	35.3	8.7
축산물	956	2,026	2,736	2,946	112.0	45.4	7.7
임산물	784	800	788	695	2.1	-13.2	-11.9

주: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로 구성, 과일·채소는 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로 구성, 가공식품은 농산물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으로 구성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5)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브라질산, 아르헨티나산 옥수수 수입량이 우리나라 옥수수 전체 수입량의 76.8%를 차지

2.2. 對米 農식품 수출 동향

한·미 FTA 발효 이후 평균 對米 農식품 수출액은 6.7억 달러로,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4억 달러에서 67.2% 증가

우리나라 對米 農식품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 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우리나라 農식품 수출액은 70.3억 달러로 2007년 이후 연평균 6.7% 증가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對米 평균 農식품 수출액 비중은 10.5%로 발효 이전 對米 평균 수출액 비중(9.7%)보다 0.8%p 증가

〈표 6〉 우리나라 農식품 수출액 및 對米 수출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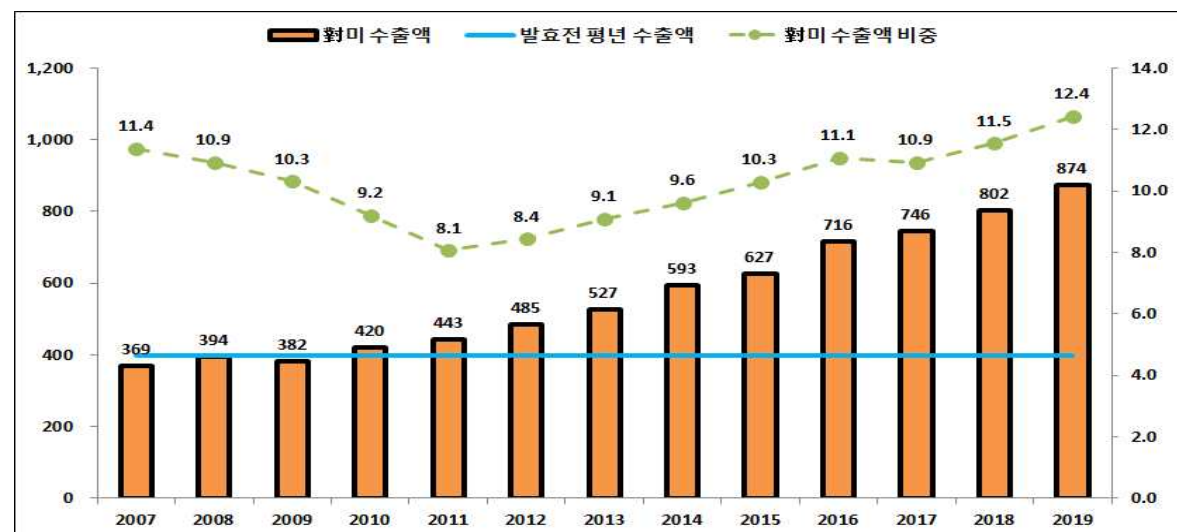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p

구 분	발효 전 평균 (‘07-‘11) (A)	발효 후 평균 (‘12-‘19) (B)	’18년 (C)	’19년 (D)	증감률		
					B/A	D/B	D/C
전체 수출액(E)	4,119.6	6,383.9	6,945.7	7,029.1	55.0	10.1	1.2
對米 수출액(F)	401.6	671.2	802.0	874.3	67.2	30.3	9.0
對米 수출액 비중(F/E)	9.7	10.5	11.5	12.4	0.8	1.9	0.9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그림 9〉 對米 農식품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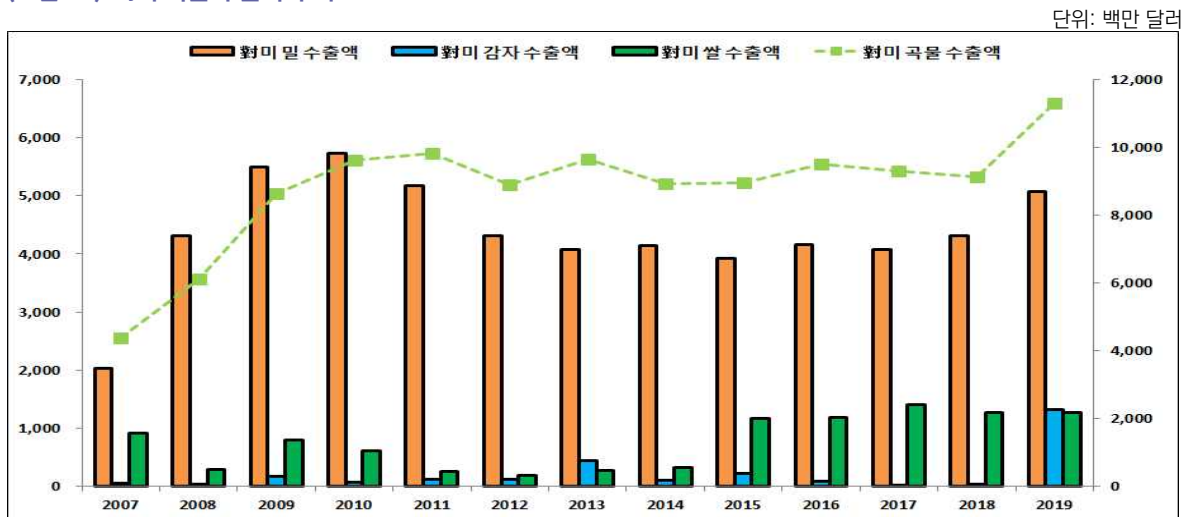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미 FTA 발효 이후 對미 곡물(22.7%), 과일·채소(45.0%), 가공식품(65.4%), 축산물(75.3%) 평균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과 비교하여 모두 증가

對미 곡물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7.7백만 달러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평균 9.5백만 달러로 22.7% 증가

- 감자(225.1%), 쌀(54.0%), 팥(167.4%), 기타곡물(7.6%)의 對미 평균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발효 전 평균과 비교해서 모두 증가
- 對미 수출 1순위 품목인 밀의 對미 평균 수출액은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한·미 FTA 발효 이후(발효 전 평균과 비교) 6.5% 감소¹⁶⁾
- 감자(225.1%), 쌀(54.0%), 팥(167.4%), 기타곡물(7.6%)의 對미 평균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 이후(발효 전 평균과 비교) 모두 증가

〈그림 10〉 對미 곡물 수출액 추이



주 1) 왼쪽 축은 對미 밀, 감자, 쌀 수출액 단위이고, 오른쪽 축은 對미 곡물 수출액 단위임.

2) 對미 곡물 수출액 중 밀, 감자, 쌀이 상위 3개 품목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對미 과일·채소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수출액보다 45.0% 증가한 8.5천만 달러(발효 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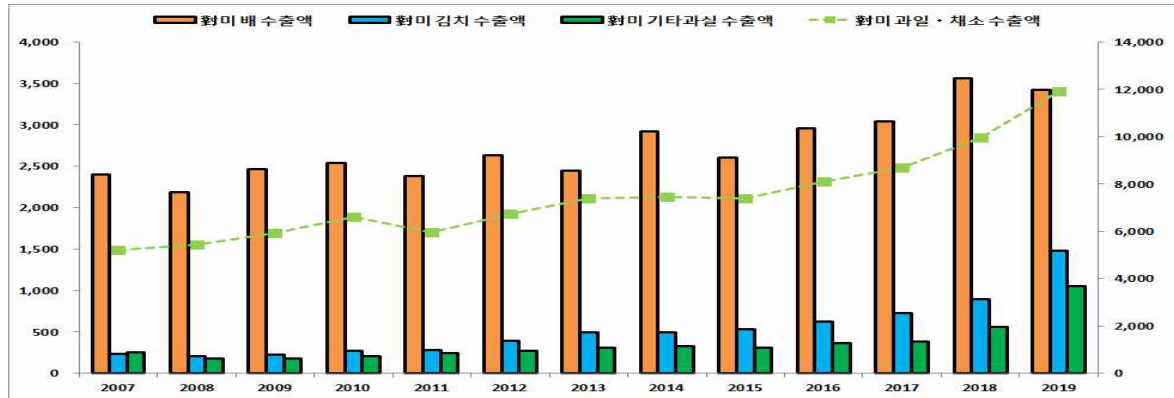
- 對미 과일·채소 수출액 상위 5개 품목(배, 김치, 기타과실, 팥이버섯, 기타채소)은 한·미 FTA 발효 후 이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수출이 상승하였을 뿐 아니라, 발효 후 평균 기준으로 전체 과일·채소 對미 수출액의 63.8%¹⁷⁾를 점유

16) 對미 밀 평균 수출량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 FTA 발효 전과 비교하여 39.0% 증가한 반면, 수출단가는 한·미 FTA 발효 이전 평균 1.15달러/kg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평균 0.80달러/kg로 30.5% 하락

17)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상위 5개 품목이 對미 과일·채소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평균한 수치

〈그림 11〉 對米 과일·채소 수출액 추이

단위: 천만 달러



주 1) 왼쪽 축은 對米 배, 김치, 기타과실 수출액 단위이고, 오른쪽 축은 對미 과일·채소 수출액 단위임.

2) 對미 과일·채소 수출액 중 배, 김치, 기타과실이 상위 3개 품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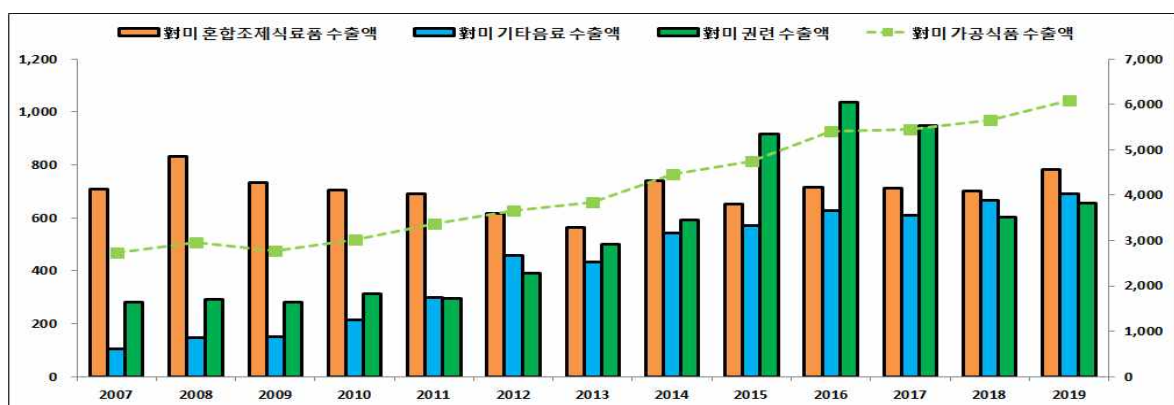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對미 가공식품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하면서, 한·미 FTA 발효 후 對미 가공식품 수출액은 발효 전 평균 금액보다 65.4% 증가한 4.9억 달러

- 對미 농식품 수출액에서 가공식품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평균 73.6%
- 對미 가공식품 수출액의 상위 5개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¹⁸⁾(△6.8%), 기타음료¹⁹⁾(213.8%), 권련(141.0%), 라면(77.9%), 기타소스제품(186.8%)로 혼합조제식료품을 제외하고 한·미 FTA 발효 후 평균 對미 수출액은 발효 전 평균보다 증가

〈그림 12〉 對미 가공식품 수출액 추이

단위: 억 달러



주 1) 왼쪽 축은 對미 혼합조제식료품, 기타음료, 권련 수출액 단위이고, 오른쪽 축은 對미 가공식품 수출액 단위임.

2) 對미 가공식품 수출액 중 혼합조제식료품, 기타음료, 권련이 상위 3개 품목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8) 對미 혼합조제식료품 수출액은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 하락으로 인해 수출액 감소. 對미 혼합조제식료품 수출량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발효 전과 비교해서 27.4% 증가하였고, 수출단가는 동기간 26.5%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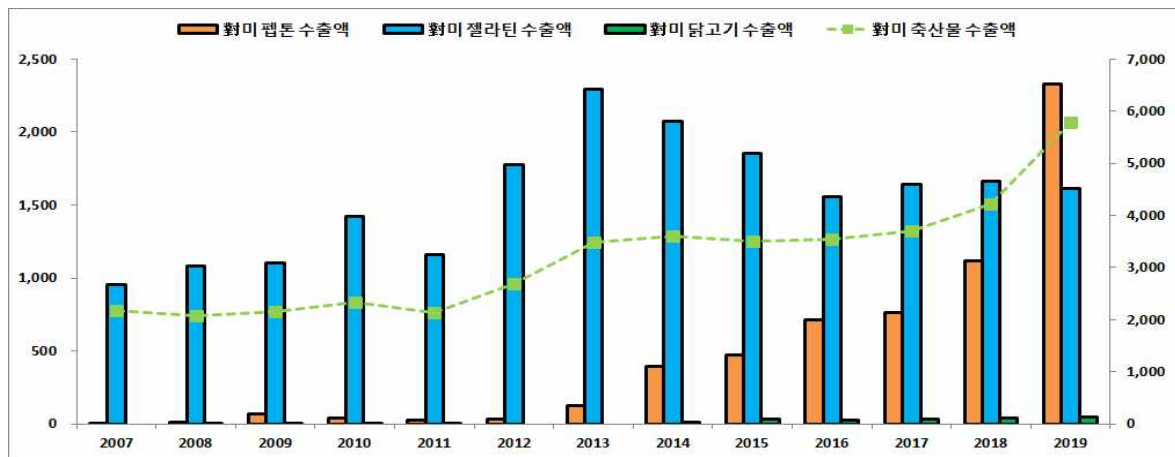
19) HSK 2202.29로 설탕, 감미료 첨가한 물, 인삼음료, 과즙음료 외 음료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로 구성. 해당 품목은 흑마늘액, 블루베리액, 홍삼액, 매실액 등이 관세청 분류사례로 포함

對미 축산물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2.2천만 달러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평균 3.8천만 달러로 75.3% 증가

- 한·미 FTA 발효 이전에는 젤라틴, 발효유, 기타 양모·조수모²⁰⁾가 對미 축산물 수출 주요품목이었지만,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펩톤, 젤라틴, 닭고기로 전환
- 펩톤, 젤라틴, 닭고기의 對미 평균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3억 달러, 115억 달러, 1백만 달러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각각 74억 달러, 181억 달러, 2.5억 달러로 크게 증가

〈그림 13〉 對미 축산물 수출액 추이

단위: 천만 달러



주 1) 왼쪽 축은 對미 펩톤, 젤라틴, 닭고기 수출액 단위이고, 오른쪽 축은 對미 축산물 수출액 단위임.

2) 對미 축산물 수출액 중 펩톤, 젤라틴, 닭고기가 상위 3개 품목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표 7〉 對미 농식품 부류별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발효 전 평균 (‘07-‘11) (A)	발효 후 평균 (‘12-‘19) (B)	’18년 (C)	’19년 (D)	증감률		
					B/A	D/B	D/C
전체 합계	401.6	671.2	802.0	874.3	67.2	30.3	9.0
농산물	363.1	585.4	673.8	739.2	61.2	26.3	9.7
- 곡물	7.7	9.5	9.1	11.3	22.7	19.5	24.0
- 과일·채소	58.3	84.5	99.6	119.0	45.0	40.8	19.5
- 가공식품	297.1	491.4	565.1	608.8	65.4	23.9	7.7
축산물	21.8	38.2	42.2	58.0	75.3	51.7	37.2
임산물	16.7	47.6	85.9	77.2	185.5	62.1	-10.2

주: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로 구성, 과일·채소는 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로 구성, 가공식품은 농산물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으로 구성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 기타 조수모·양모 세번 중 HSK 5112.11.1000과 6110,11,0000 세번이 對미 기타 조수모·양모 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해당 품목들은 양모로 만든 직물과 의류를 의미

주요 품목별 수입 실태²¹⁾

3.1. 축산물

주요 축산물의 국가별 협정관세율은 한·미 FTA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미국산 축산물은 주요 축산 경쟁국(호주, EU, 브라질 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협정관세율이 적용

쇠고기의 경우 2019년 기준 수입비중이 비슷한 호주산 쇠고기(24.0%)보다 낮은 18.6%의 관세율이 적용

미국산 냉동돼지고기 협정관세율은 EU산과 동일하게 2016년부터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냉동삼겹살의 경우 EU산은 2019년 4.5%인 반면 미국산은 무관세

미국산 닭고기의 경우 한·미 FTA 발효 후 협정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브라질과 태국 등 수출 경쟁국에 비해 관세율 면에서 우위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주요 축산물의 평균 수입가격은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상승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냉동갈비와 냉장쇠고기의 평균 수입가격은 발효 전 평균 대비 각각 89.6%, 24.7%로 크게 상승

한·미 FTA 발효 후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과 냉장삼겹살의 평균 수입가격은 협정관세율 인하 영향에도 불구하고 발효 전 평균 대비 각각 3.3%, 4.9%, 8.2% 상승

미국산 냉동닭다리의 발효 후 평균 수입가격은 관세 인하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발효 전 평균 대비 6.0% 하락

21) '한·미 FTA 발효 8년, 농식품 교역 변화' 이슈리포트는 주로 한·미 FTA 발효 전과 발효 후를 비교하여 서술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 5개년 단순 평균, 발효 후 평균은 2012~2019년 8개년의 단순 평균값을 의미

〈표 8〉 주요 축산물 수입가격 협정 관세율 동향

단위: 원/kg, %

구 분			발효 전 평균 (‘07-‘11) (A)	발효 후 평균 (‘12-‘19) (B)	’18년 (C)	’19년 (D)	증감률		
							B/A	D/B	D/C
쇠고기	미국산	냉동쇠고기	8,289	8,754	8,097	8,332	5.6	-4.8	2.9
		관세율(%)	40.0	28.0	21.3	18.6	2026년 완전철폐		
		냉동갈비	4,635	8,787	9,646	10,495	89.6	19.4	8.8
		관세율(%)	40.0	28.0	21.3	18.6	2026년 완전철폐		
		냉장쇠고기	10,625	13,244	13,173	13,591	24.7	2.6	3.2
		관세율(%)	40.0	28.0	21.3	18.6	2026년 완전철폐		
	호주산	냉동쇠고기	6,089	7,442	7,063	7,667	22.2	3.0	8.6
		관세율(%)	40.0	33.0	26.6	24.0	2028년 완전철폐		
		냉동갈비	3,477	7,183	7,449	7,897	106.6	9.9	6.0
		관세율(%)	40.0	33.0	26.6	24.0	2028년 완전철폐		
		냉장쇠고기	11,211	13,785	13,701	14,547	23.0	5.5	6.2
		관세율(%)	40.0	33.0	26.6	24.0	2028년 완전철폐		
돼지고기	미국산	냉동돼지고기	3,055	3,156	2,883	3,104	3.3	-1.6	7.7
		관세율(%)	25.0	5.0	0.0	0.0	2016년 완전철폐		
		냉동삼겹살	4,492	4,710	4,830	4,547	4.9	-3.5	-5.9
		관세율(%)	25.0	3.1	0.0	0.0	2016년 완전철폐		
		냉장삼겹살	6,775	7,330	7,004	7,033	8.2	-4.0	0.4
		관세율(%)	22.5	12.4	6.7	4.5	2021년 완전철폐		
	EU산	냉동돼지고기	2,510	2,602	2,677	2,923	3.7	12.4	9.2
		관세율(%)	24.2	5.2	0.0	0.0	2016년 완전철폐		
		냉동삼겹살	4,840	5,032	4,839	4,948	4.0	-1.7	2.3
		관세율(%)	24.5	12.5	6.8	4.5	2021년 7월 완전철폐		
		냉장삼겹살	5,958	7,036	6,700	5,749	18.1	-18.3	-14.2
		관세율(%)	22.1	11.2	6.1	4.0	2021년 7월 완전철폐		
닭고기	미국산	냉동닭다리	1,793	1,686	1,534	1,731	-6.0	2.7	12.9
		관세율(%)	20.0	11.0	6.0	4.0	2021년 완전철폐		
		냉동닭날개	2,175	287	0	0	-86.8	-	-
		관세율(%)	20.0	12.5	8.3	6.6	2023년 완전철폐		
		냉동닭가슴	5,329	3,919	0	0	-26.5	-	-
		관세율(%)	20.0	12.5	8.3	6.6	2023년 완전철폐		
	브라질산	냉동닭다리	3,143	2,947	2,519	2,827	-6.3	-4.1	12.2
		관세율(%)	20.0	20.0	20.0	20.0	기준관세 유지		
		냉동닭날개	3,337	3,471	3,070	3,237	4.0	-6.7	5.5
		관세율(%)	20.0	20.0	20.0	20.0	기준관세 유지		
		냉동닭가슴	3,629	3,328	3,019	3,143	-8.3	-5.6	4.1
		관세율(%)	20.0	20.0	20.0	20.0	기준관세 유지		
	태국산	냉동닭다리	0	3,449	3,129	3,426	-	-0.7	9.5
		관세율(%)	20.0	20.0	20.0	20.0	기준관세 유지		
		냉동닭날개	2,706	1,529	3,744	4,602	-43.5	201.0	22.9
		관세율(%)	20.0	20.0	20.0	20.0	기준관세 유지		
		냉동닭가슴	0	1,438	3,984	4,121	-	186.5	3.4
		관세율(%)	20.0	20.0	20.0	20.0	기준관세 유지		

주 1) 주요 축산물 관세 및 수입가격 산출을 위한 HS 코드는 냉동쇠고기(0202.30.0000), 냉동갈비(0202.20.1000), 냉장쇠고기(0201.30.0000), 냉동 돼지고기(0203.29.9000), 냉동삼겹살(0203.29.1000), 냉장삼겹살(0203.19.1000), 냉동닭다리(0207.14.1010), 냉동닭가슴 (0207.14.1020), 냉동닭날개(0207.14.1030)임.

2) 수입가격은 각 세번별 수입단가에 관세 및 환율을 적용한 가격임.

3) 관세율은 주요 축산물 세번에 대한 협정관세율을 나타내며, FTA 미체결국가는 기준세율을 적용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협정문, 한국은행.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축산물의 평균 수입량은 발효 전 평균 대비 34.7% 증가했으며, 이행 8년차 수입량 또한 발효 후 평균과 전년 대비 각각 27.7%, 2.2% 증가

전체 축산물 수입량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효 전 평균 31.1%에서 발효 후 평균 31.5%로 소폭(0.4%p) 증가한 반면, 미국산 닭고기 수입량 비중은 발효 전 평균 대비 32.8%p 감소한 18.6%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평균 수입량은 발효 전 평균 대비 각각 140.1%, 46.6% 증가한 15만 8천 톤과 15만 9천 톤

2019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반면, 돼지고기는 국내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국내외 수급 및 가격이 변동하여 전년 대비 6.5% 감소

- 2018년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영향(돼지고기 생산량 감소)으로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국제가격 상승
- 국내 돼지고기 재고량 증가 등으로 2019년 돼지 도매가격은 2018년(4,296원/kg)보다 12.0% 하락한 3,779원/kg

한·미 FTA 발효 전 미국산 닭고기 평균 수입량은 4만 5천 톤이었으나 발효 후 평균 2만 6천 톤으로 42.2% 감소했으며, 2019년 수입량 또한 발효 후 평균과 전년 대비 각각 88.4%, 70.1% 감소한 3천 톤

- 닭고기는 미국 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2015년, 2017년)과 2018년 미국산 닭고기의 동물용 의약품(SEM) 검출 등의 영향으로 한·미 FTA 발효 이전보다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²²⁾

〈표 9〉 미국산 주요 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구 분		발효 전 평균 (‘07-‘11) (A)	발효 후 평균 (‘12-‘19) (B)	’18년 (C)	’19년 (D)	증감률		
						B/A	D/B	D/C
쇠고기	수입액	330 (28.4)	1,052 (47.9)	1,635 (56.2)	1,826 (58.4)	218.7	73.5	11.6
	수입량	66 (24.3)	158 (42.2)	224 (49.4)	248 (51.5)	140.1	56.6	10.4
돼지고기	수입액	274 (28.6)	448 (31.5)	602 (32.3)	571 (33.3)	63.7	27.5	-5.0
	수입량	108 (29.5)	159 (33.0)	225 (36.2)	210 (36.8)	46.6	32.6	-6.5
닭고기	수입액	62 (35.3)	40 (12.4)	16 (4.3)	7 (1.7)	-35.7	-81.4	-53.3
	수입량	45 (51.4)	26 (18.6)	10 (6.2)	3 (1.7)	-42.2	-88.4	-70.1
축산물 전체	수입액	956 (25.4)	2,026 (33.4)	2,736 (36.4)	2,946 (37.8)	112.0	45.4	7.7
	수입량	352 (31.1)	474 (31.5)	592 (33.3)	605 (33.5)	34.7	27.7	2.2

주: 괄호 안은 구분별 전체 수입액(수입량)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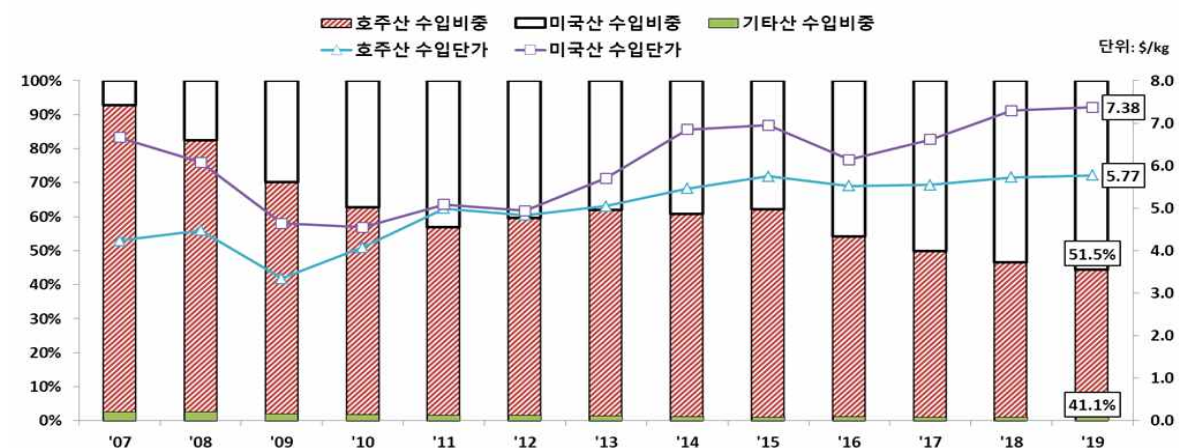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전망 2020 (2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참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발효 전 평균 6만 6천 톤에서 발효 후 평균 15만 8천 톤으로 140.1% 증가했으며, 이행 8년차 수입량은 24만 8천 톤으로 발효 후 평균 대비 10.4% 증가

2019년 기준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시장 점유율은 51.5%로 호주산(41.1%)에 비해 우위

- 대형 유통업체의 수입육 매장 확대, 가정 간편식(HMR)과 식자재 등 가공시장 확대, 수출업체의 적극적인 판매 전략(냉동육 끼워팔기)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광우병(BSE)발생으로 국내 수입이 중단되었다가 2008년 수입재개 후 수입량을 늘려왔으며, 2017년 미국산 점유율(45.9%)이 호주산(45.8%)을 추월한 이후 수입산 쇠고기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

〈그림 14〉 주요 쇠고기 수입국 비중 및 수입단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냉동쇠고기, 냉동갈비, 냉장쇠고기의 평균 수입량은 발효 전 평균 대비 각각 91.5%, 165.6%, 467.9% 증가

미국산 냉동쇠고기의 한·미 FTA 발효 후 평균 수입량은 발효 전 평균 대비 91.5% 증가한 5만 5천 톤으로 호주산 냉동쇠고기 보다 높은 수입단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행 8년차 수입량은 9만 3천 톤으로 발효 후 평균과 전년 대비 각각 67.6%, 14.8% 증가

미국산 냉동갈비 수입량은 발효 후 평균 6만 2천 톤으로 발효 전 평균 대비 165.6% 증가했으며, 이행 8년차 수입량 또한 발효 후 평균과 전년 대비 호주산보다 크게 증가

- 2019년 미국산 냉동갈비 수입량은 한·미 FTA 발효 후 평균과 전년 대비 각각 37.9%, 11.8% 증가했고, 호주는 10.6%, 6.3% 증가

미국산 냉장쇠고기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전 호주산 평균 수입량(2만 5천 톤)보다 적은 4천 톤이었으나 발효 후 평균 2만 4천 톤으로 467.9% 증가하여 이행 8년차에는 5만 톤 기록

- 2019년 호주산 냉장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9.7% 감소한 2만 9천 톤

〈표 10〉 세번별 쇠고기 수입동향

단위: 달러/kg,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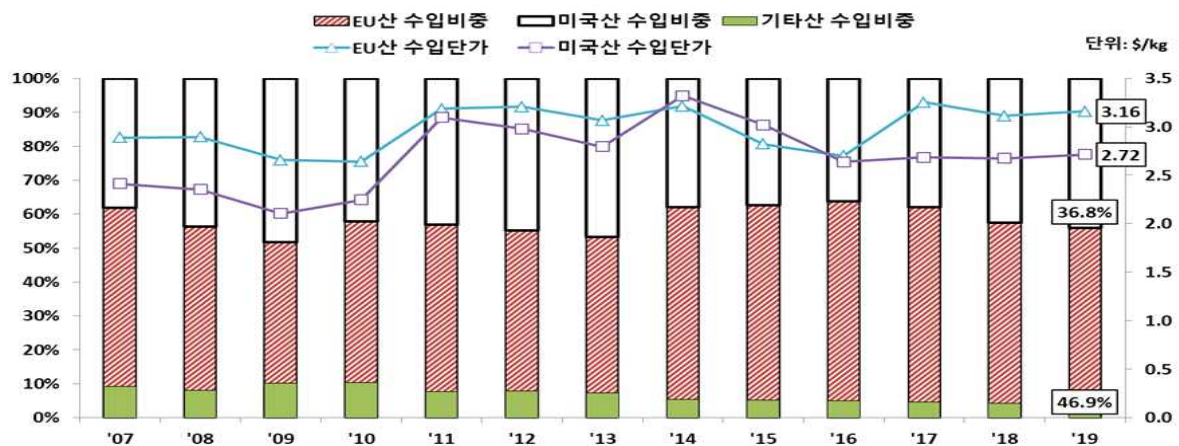
구 분			발효 전 평균 (‘07-‘11) (A)	발효 후 평균 (‘12-‘19) (B)	‘18년 (C)	‘19년 (D)	증감률		
							B/A	D/B	D/C
냉동쇠고기	호주	수입단가	3.93	5.03	5.07	5.30	27.8	5.5	4.6
		수입량	75	97	103	107	28.6	10.8	4.1
	미국	수입단가	5.18	6.09	6.07	6.03	17.6	-1.0	-0.7
		수입량	29	55	81	93	91.5	67.6	14.8
	기타	수입량	20	11	12	13	-43.7	10.3	0.2
냉동갈비	미국	수입단가	4.74	6.32	7.23	7.59	33.3	20.0	5.0
		수입량	23	62	76	85	165.6	37.9	11.8
	호주	수입단가	3.56	4.88	5.35	5.46	36.9	12.0	2.2
		수입량	11	22	22	24	91.8	10.6	6.3
	기타	수입량	8	15	14	16	73.0	11.5	14.6
냉장쇠고기	미국	수입단가	6.96	9.51	9.87	9.83	36.6	3.4	-0.4
		수입량	4	24	45	50	467.9	106.8	10.0
	호주	수입단가	7.30	9.31	9.84	10.06	27.6	8.0	2.3
		수입량	25	29	33	29	14.2	2.9	-9.7
	기타	수입량	1	0	0	1	-66.0	113.6	27.8

주: HS 코드는 냉동쇠고기(0202.30.0000), 냉동갈비(0202.20.1000), 냉장쇠고기(0201.30.0000)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10만 8천 톤에서 발효 후 평균 15만 9천 톤으로 46.6% 증가했으며, 이행 8년차 수입량은 21만 톤으로 발효 후 평균 대비 32.6% 증가

〈그림 15〉 주요 돼지고기 수입국 비중 및 수입단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냉동돼지고기와 냉동삼겹살의 평균 수입량은 발효 전 평균 대비 각각 49.6%, 6.1% 증가한 반면, 냉장삼겹살은 36.3% 감소

미국산 냉동돼지고기 발효 후 평균 수입량은 13만 5천 톤으로 발효 전 평균 대비 49.6% 증가했으며, 이행 8년차 수입량 또한 발효 후 평균 대비 31.5% 증가

- 미국산 냉동돼지고기 수입단가는 발효 후 평균 2.67달러/kg으로 발효 전 평균 대비 16.4% 상승한 이후 큰 변동이 없는 반면, EU산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1.71달러/kg에서 발효 후 2.61달러/kg, 2019년에는 3.14달러/kg로 크게 증가

이행 8년차 미국산 냉동삼겹살 수입량은 발효 후 수입단가 하락과 관세 인하 영향에도 불구하고 발효 후 평균과 전년 대비 각각 73.5%, 58.2% 감소했으며, EU(독일)산 수입량은 큰 폭으로 증가

미국산 냉장삼겹살의 발효 후 평균 수입량은 3천 톤으로 발효 전 평균 대비 36.3% 감소했으며, 이행 8년차 수입량 또한 발효 후 평균 대비 29.6% 감소한 2천 톤

〈표 11〉 세번별 돼지고기 수입동향

단위: 달러/kg,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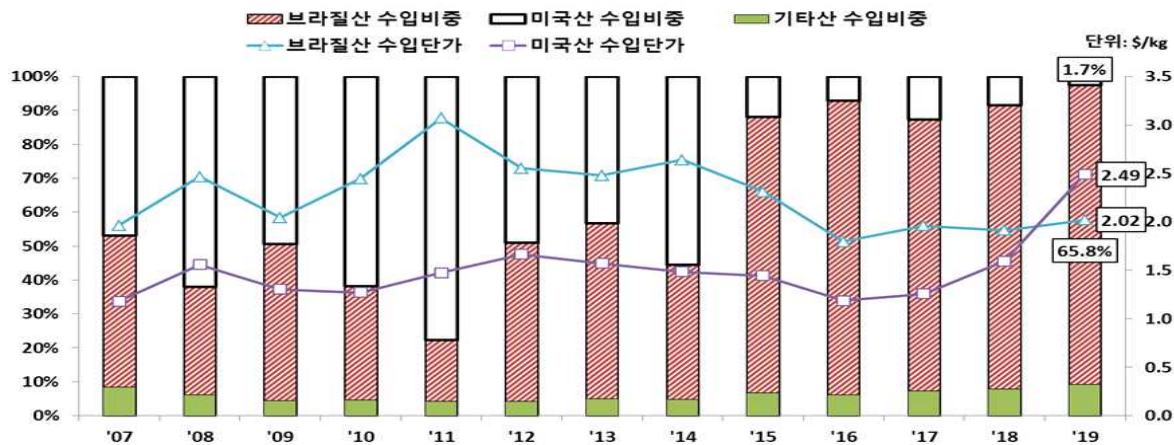
구 분			발효 전 평균 (‘07-‘11) (A)	발효 후 평균 (‘12-‘19) (B)	‘18년 (C)	‘19년 (D)	증감률		
							B/A	D/B	D/C
냉동돼지고기	미국	수입단가	2.29	2.67	2.62	2.66	16.4	-0.3	1.6
		수입량	90	135	192	178	49.6	31.5	-7.4
	EU	수입단가	1.71	2.61	2.89	3.14	52.6	20.6	8.6
		수입량	17	45	63	59	163.1	29.7	-7.6
	기타	수입량	122	125	151	135	2.0	8.6	-10.5
냉동삼겹살	EU	수입단가	3.81	4.03	4.05	4.05	5.8	0.5	-0.1
		수입량	6	51	69	67	812.5	30.4	-2.6
	미국	수입단가	3.22	4.09	4.39	3.90	27.1	-4.6	-11.1
		수입량	2	2	1	0	6.1	-73.5	-58.2
	기타	수입량	92	65	70	64	-29.4	-2.3	-8.8
냉장삼겹살	캐나다	수입단가	4.83	5.56	5.53	5.66	15.0	1.9	2.4
		수입량	4	4	6	5	-14.6	46.2	-6.4
	미국	수입단가	5.11	5.71	5.97	5.77	11.8	1.1	-3.2
		수입량	4	3	2	2	-36.3	-29.6	16.9
	기타	수입량	2	6	8	7	294.0	10.0	-21.4

주: HS 코드는 냉동돼지고기(0203.29.9000), 냉동삼겹살(0203.29.1000), 냉장삼겹살(0203.19.1000)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미국산 닭고기 수입량은 발효 전 평균 4만 5천 톤에서 발효 후 평균 2만 6천 톤으로 42.2% 감소했으며, 이행 8년차 수입량은 3천 톤으로 발효 후 평균 대비 88.4% 감소

〈그림 16〉 주요 닭고기 수입국 비중 및 수입단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냉동닭다리 평균 수입량은 발효 전 평균 대비 40.8% 감소

미국산 냉동닭다리 수입량은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발효 후 평균 2만 5천 톤으로 발효 전 대비 40.8% 감소했으며, 이행 8년차 미국산 냉동닭다리 수입단가는 발효 후 평균 대비 3.4% 하락한 반면 수입량은 91.2% 감소

2019년 브라질산과 태국산 냉동닭다리 수입량은 11만 5천 톤과 9천 톤으로 한·미 FTA 발효 후 평균 대비 46.1%와 481.9% 증가

- 브라질산 닭고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20.0%)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형태 가공이 가능한 점에서 국내 수입업체의 선호도가 높음²³⁾.
- 태국의 경우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인체 감염사례 확인으로 국내 수입이 금지 되었다가 2009년 청정국 지위를 얻었으며, 짧은 운송기간(미국, 브라질 45일, 태국 약 10일)과 원하는 형태 및 중량으로 가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객 선호도가 크게 증가²⁴⁾

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참고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보고서를 참고

〈표 12〉 냉동닭다리 수입동향

단위: 달러/kg, 천 톤

구 분			발효 전 평균 (‘07-‘11) (A)	발효 후 평균 (‘12-‘19) (B)	‘18년 (C)	‘19년 (D)	증감률		
							B/A	D/B	D/C
냉동닭다리	브라질	수입단가	2.31	2.12	1.91	2.02	-8.3	-4.7	5.9
		수입량	18	79	106	115	335.9	46.1	8.6
	태국	수입단가	-	2.45	2.37	2.45	-	-0.03	3.3
		수입량	0	2	3	9	-	481.9	199.2
	미국	수입단가	1.37	1.48	1.32	1.43	7.7	-3.4	8.6
		수입량	43	25	9	2	-40.8	-91.2	-75.7
	기타	수입량	0	1	1	2	265.9	48.8	90.4

주: 닭고기의 주요 HS 코드는 냉동닭다리(02027.14.1010), 냉동닭가슴(0207.14.1020), 냉동닭날개(0207.14.1030) 등이지만, 국내 닭고기 수입량에서 냉동닭다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2.1%(2019년 기준)로 높게 나타나 냉동닭다리 수입동향만 제시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2. 과일

주요 신선과일의 수입량의 대부분은 미국과 칠레가 점유하고 있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오렌지, 포도, 체리는 무관세로 수입

미국산 오렌지의 계절 관세는 국내산 감귤류 출하시기와 겹치지 않는 3~8월에 적용되며, 이행 1년차에 30.0%로 인하된 후 6단계에 걸쳐 감축되어 2018년 철폐

미국산 포도의 계절관세는 2016년, 칠레산 포도의 계절관세는 2014년에 철폐

미국산 체리의 협정관세율은 한·미 FTA 발효 시점에 즉시철폐 되었으며, 칠레산 체리는 2014년에 철폐

미국산 신선과일 중 오렌지와 포도의 수입가격은 관세 인하 효과 등으로 발효 전 평균보다 하락

미국산 오렌지의 발효 후 평균 수입가격은 평년 대비 1.7% 하락한 1,935원/kg으로 2018년 계절관세가 철폐되면서 전년 대비 1.5% 하락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포도의 평균 수입가격은 발효 전 평균보다 10.3% 하락한 3,485원/kg이며, 2019년 수입가격은 3,667원/kg으로 발효 후 평균과 전년 대비 각각 5.5%, 20.3% 상승

미국산 체리의 수입가격은 한·미 FTA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가 철폐되면서 발효 전 평균 대비 9.6% 하락했으며, 칠레산 체리의 수입 증가 등으로 2019년 수입가격은 10,152원/kg으로 발효 후 평균보다 1.4% 하락

〈표 13〉 주요 신선과일 수입가격 동향 및 주요 수입국 관세율 추이

단위: 원/kg, %

구 분		발효 전 평균 (‘07-’11) (A)	발효 후 평균 (‘12-’19) (B)	’18년 (C)	’19년 (D)	증감률		
						B/A	D/B	D/C
오렌지	미국산	1,968	1,935	1,985	1,954	-1.7	1.0	-1.5
	관세율(%)	50.0	13.1	0.0	0.0	2018년 완전철폐		
포도	미국산	3,885	3,485	3,057	3,677	-10.3	5.5	20.3
	관세율(%)	45.0	7.5	0.0	0.0	2016년 완전철폐		
	칠레산	2,977	3,324	3,174	3,256	11.6	-2.0	2.6
	관세율(%)	20.7	1.6	0.0	0.0	2014년 완전철폐		
체리	미국산	11,389	10,300	10,058	10,152	-9.6	-1.4	0.9
	관세율(%)	24.0	0.0	0.0	0.0	발효 즉시 철폐		
	칠레산	0	5,536	9,838	9,807	-	77.1	-0.3
	관세율(%)	11.6	0.9	0.0	0.0	2014년 완전철폐		

주 1) 각 세번별 수입단가에 관세 및 환율을 적용한 가격

2) 신선과일 세번에 대한 협정관세율(계절관세율)을 나타냄.

자료: GTA, FTA협정문, 한국은행.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한·미 FTA 발효 전 대비 발효 후 평균 약 1.1배 증가했으며, 미국산 과일 수입액 비중은 동기간 대비 3.1%p 증가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2.7억 달러에서 한·미 FTA 발효 후 평균 5.8억 달러로 111.5% 증가했으며, 미국산 과일 수입액 비중은 동기간 29.7%에서 32.8%로 3.1%p 증가

- 전체 과일 수입액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이후 연평균 2.8% 감소하여 2019년 미국산 과일 수입액 비중은 29.7%

관세 인하 효과 등으로 2019년 미국산 주요 신선과일의 수입액과 수입량 모두 한·미 FTA 발효 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발효 후와 비교했을 때에도 오렌지, 체리를 제외한 미국산 주요 신선과일의 수입은 증가²⁵⁾

-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발효 후 평균 34.4% 증가했으나, 2019년에는 미국의 잦은 강우로 인한 오렌지 품질저하로 발효 후 평균 대비 10.3%, 전년 대비 11% 감소
- 미국산 체리 수입량은 한·미 FTA 발효 후 2017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말 칠레산 체리의 검역기준이 완화되면서 2018년부터 수입이 감소
- 미국산 포도 수입량은 미국산 포도의 협정관세율 인하 등으로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발효 후 약 1.6배 증가

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전망 2020 (2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참고

-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국내 레몬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미국산 레몬 수입량은 한·미 FTA 발효 후 평균 대비 18.6%, 전년 대비 8.2% 증가
- 미국산 아보카도 수입량은 아보카도가 건강식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한·미 FTA 발효 전 대비 발효 후 8.3배 증가했으나, 2019년 하반기 미국산 아보카도에서 발생한 안전성 문제로 인해 전년 대비 66% 감소

〈표 14〉 미국산 과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톤, %

구분			발효 전 평균 (‘07-‘11) (A)	발효 후 평균 (‘12-‘19) (B)	’18년 (C)	’19년 (D)	증감률		
							B/A	D/B	D/C
주요 신선 과일	오렌지	수입액	113 (93.9)	195 (94.7)	234 (93.2)	193 (94.3)	73.1	-0.9	-17.3
		수입량	95,792 (93.8)	128,752 (93.4)	129,653 (91.0)	115,442 (92.8)	34.4	-10.3	-11.0
	체리	수입액	32 (93.3)	112 (90.1)	132 (80.9)	100 (73.3)	253.4	-10.8	-24.1
		수입량	3,826 (95.0)	12,222 (90.4)	14,444 (79.9)	11,508 (72.6)	219.4	-5.8	-20.3
	포도	수입액	9 (12.4)	29 (17.0)	55 (31.8)	51 (25.1)	209.5	73.6	-7.1
		수입량	3,902 (11.5)	10,002 (17.0)	19,665 (32.8)	16,095 (23.3)	156.3	60.9	-18.2
	레몬	수입액	7 (88.5)	28 (80.2)	35 (75.7)	32 (75.8)	281.7	14.1	-7.6
		수입량	4,875 (87.4)	12,403 (79.6)	13,606 (74.1)	14,716 (75.6)	154.4	18.6	8.2
	아보카도	수입액	1 (60.5)	10 (60.5)	33 (70.4)	14 (42.7)	849.4	30.6	-59.3
		수입량	242 (54.0)	2,256 (56.9)	7,991 (69.1)	2,716 (32.9)	833.5	20.4	-66.0
전체 과일		수입액	272 (29.7)	576 (32.8)	686 (31.9)	591 (29.7)	111.5	2.5	-13.9
		수입량	153,629 (19.3)	235,032 (21.5)	246,934 (19.7)	221,015 (17.9)	53.0	-6.0	-10.5

주 1) 괄호 안은 품목별 전체 수입액, 수입량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

2) 전체 과일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신선, 가공 과일 HSK 세번 모두 포함한 값.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미국산 포도의 일반관세율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매년 균등하게 인하²⁶⁾되고 있으며, 한·미 FTA 발효 전 대비 발효 후 평균 수입량 비중은 5.5%p 증가

2019년 기준 미국산과 칠레산 포도의 계절관세율은 모두 철폐되었으며, 미국산 포도의 일반관세율은 이행 17년차 까지 매년 균등하게 인하되는 스케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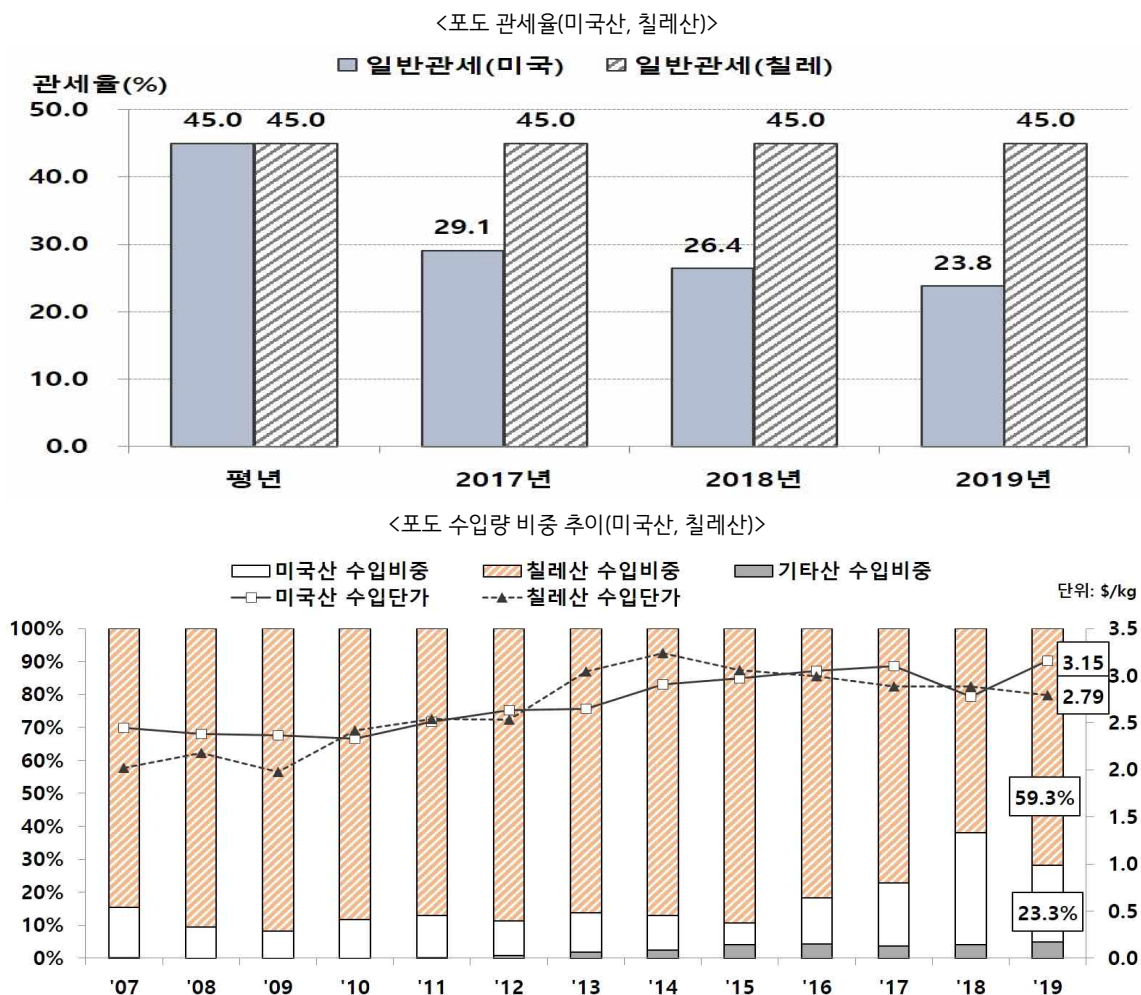
- 미국산 포도의 일반관세율은 한·미 FTA 이행 이후 매년 균등하게 인하되어 2019년 기준 23.8%인 반면, 칠레산 포도의 관세율은 45%로 기준관세율 적용

26) 미국산 포도의 일반관세율은 한·미 FTA 협정 발효일(2012.03.15)을 시작으로 1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되어, 이행 17년차(2028년 1월 1일)부터 무관세가 적용

미국산 포도의 수입량 비중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11.5%에서 발효 후 평균 17%로 5.5%p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호주산 신제품 포도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5%p 감소

- 2019년 우리나라 포도 수입량은 미국의 잣은 강우와 칠레의 작황 호조와 함께 블랙사파이어 등 호주산 신제품 포도의 수입량이 증가하면서²⁷⁾, 미국산 포도의 수입량 비중은 전년(32.8%) 대비 9.5%p 감소한 23.3%

〈그림 17〉 국가별 포도 관세율과 수입량 비중 및 수입단가 추이



주: 계절관세는 10월 16일(칠레산: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용되며, 2019년 현재 미국산, 칠레산의 계절관세는 모두 0%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전망 2020 (2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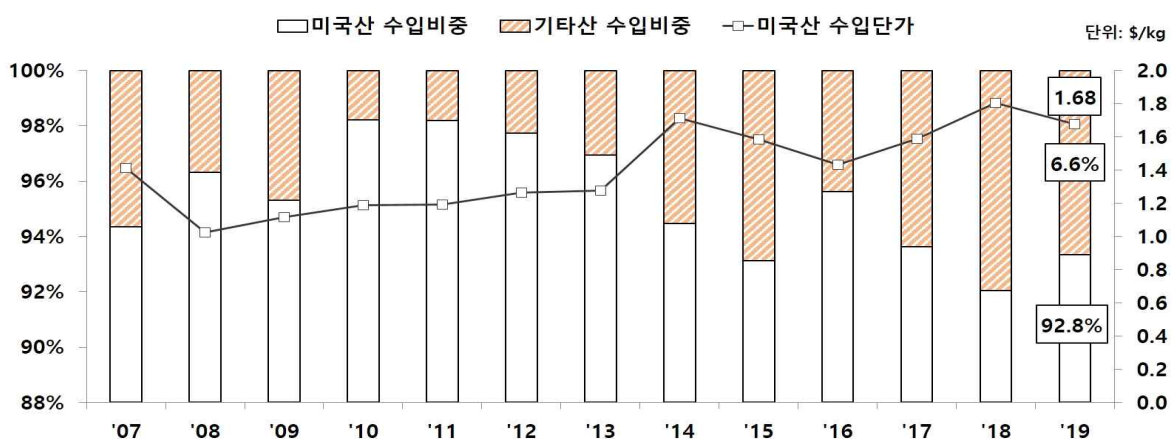
미국산 오렌지의 수입량 비중은 2019년 미국산 오렌지의 품질저하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국의 작황 부진에 따라 전년 대비 1.8%p 증가했으나, 한·미 FTA 발효 후 평균 대비 0.4%p 감소

2019년 1분기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강우에 의한 오렌지 품질저하로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은 감소했으나²⁸⁾, 주요 오렌지 수출 국가(남아공)의 작황 부진으로 전체 오렌지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미국산 오렌지 수입비중은 전년(91%) 대비 1.8%p 증가

- 2019년 우리나라의 전체 오렌지 수입량은 124.4천 톤으로 전년(142.4천 톤) 대비 18.1천 톤 감소

우리나라 전체 오렌지 수입량 감소와 수입국 다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 비중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93.8%에서 발효 후 평균 93.4%로 0.4%p 감소

〈그림 18〉 국가별 오렌지 수입량 비중 및 수입단가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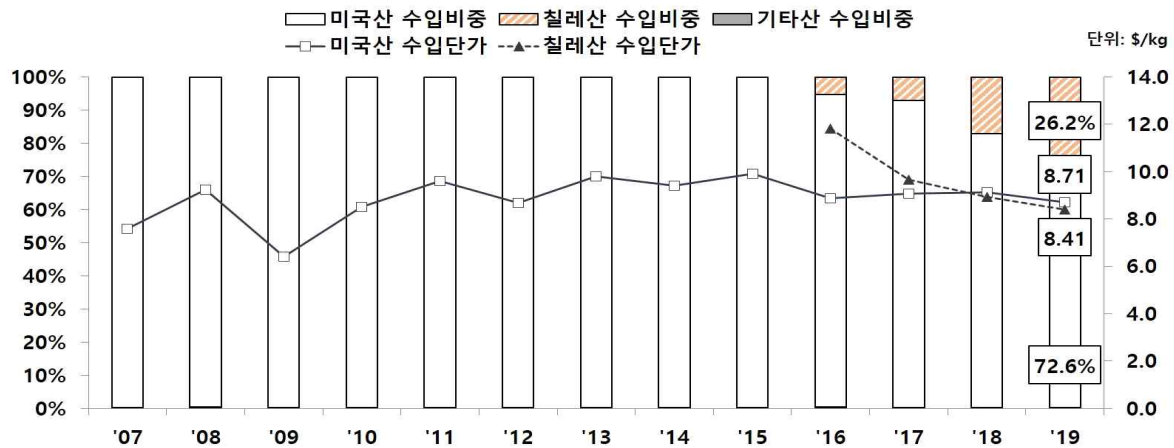
미국산 체리 수입량 비중은 칠레산 체리가 수입되기 시작한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

미국산 체리 수입은 2017년까지 전체 우리나라 체리 수입에서 90% 내외 수준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2016년 말 칠레산 체리의 SPS 조치가 해제되면서 미국산 체리 수입량 비중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95%에서 발효 후 평균 90.4%로 4.7%p 감소

- 미국산 체리 수입량은 2016년 12.4천 톤에서 연평균 2.4% 감소하여 2019년에는 11.5천 톤이었으나, 칠레산 체리 수입량은 동기간 0.7톤에서 연평균 81.9% 증가하여 2019년에는 4.2톤

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전망 2020 (2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참고

〈그림 19〉 국가별 체리 수입량 비중 및 수입단가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미국산 레몬의 수입량 비중은 한·미 FTA 발효 전 대비 발효 후 평균 7.8%p 감소했으며, 미국산 아보카도의 수입량 비중은 아보카도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기간 2.9%p 증가했으나, 2019년 하반기 안전성 논란으로 크게 감소

식생활의 서구화로 가정 및 외식업계에서 레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레몬 수입량은 증가하는 추세.²⁹⁾

- 우리나라의 전체 레몬 수입량은 2007년 4.7천 톤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연평균 12.5% 증가하여 2019년에는 19.5천 톤을 기록
- 미국산 레몬 수입량 비중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발효 후 7.8%p 감소한 반면, 칠레산 레몬 수입량 비중은 동기간 12.4%에서 17.8%로 5.4%p 증가

아보카도가 건강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전체 아보카도 수입량이 증가하였고, 미국산 아보카도의 수입량 비중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발효 후 평균 2.9%p 증가

- 미국산 아보카도의 수입량 비중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54%에서 발효 후 평균 56.9%로 2.9%p 증가³⁰⁾

미국산 아보카도에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되면서 2019년 8월부터 미국산 아보카도는 판매 중단되었으며(2019년 8월 이후 수입실적 없음), 2019년 미국산 아보카도의 수입량 비중은 전년 대비 36.2%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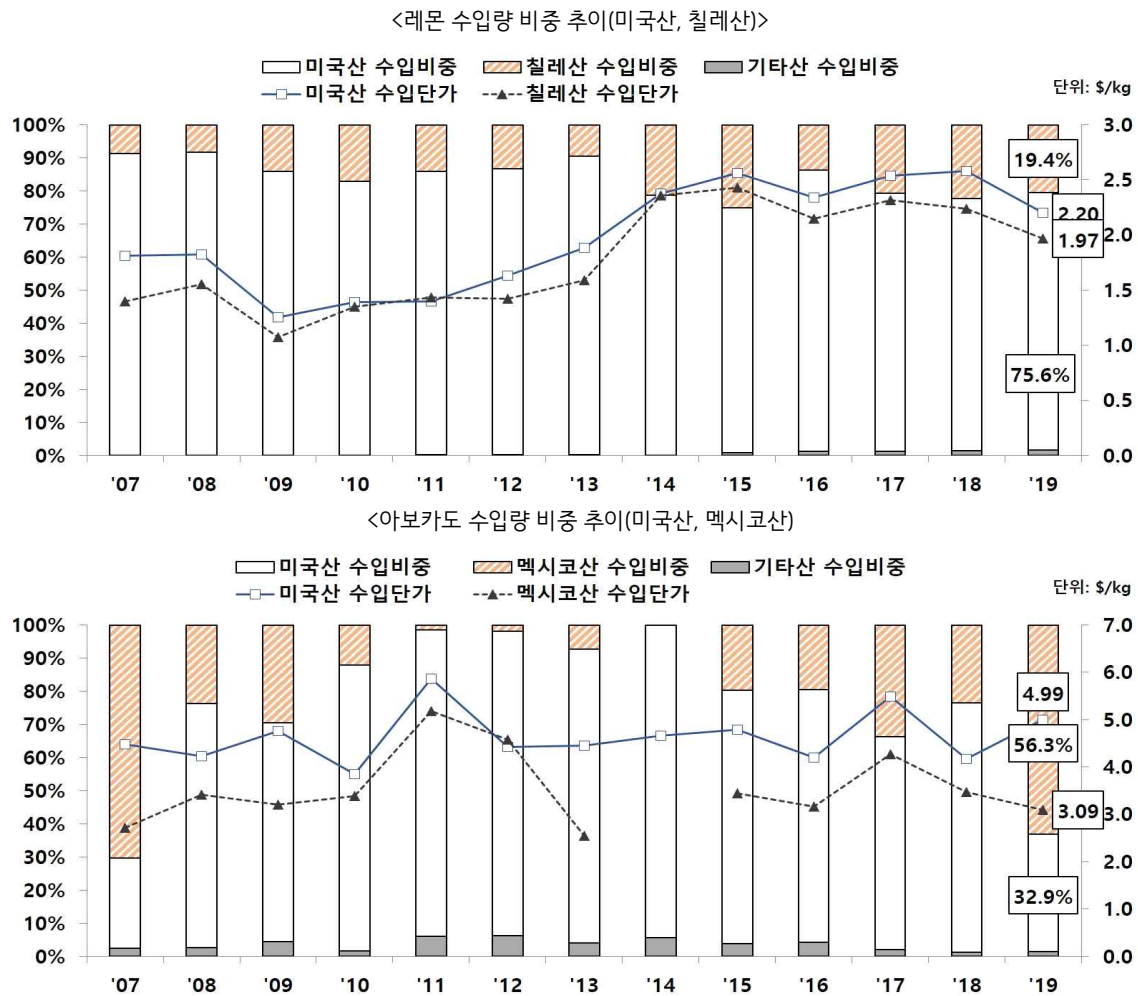
- 미국산 아보카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05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0.10~0.12mg/kg)되면서 해당 제품은 2019년 8월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전망 2020 (2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참고

30)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미국산 아보카도 수입량 비중은 평균 60.3%

- 2019년 전체 수입에서 미국산 아보카도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32.9%로 전년(69.1%) 대비 약 0.5배 감소했으며, 동기간 멕시코산 아보카도의 수입량 비중은 21.3%에서 56.3%로 약 1.6배 증가

〈그림 20〉 국가별 레몬, 아보카도 수입량 비중 및 수입단가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